# 2026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 일 시 | 참 석 인 원 | | |
|---|---|---|---|
| | 시청자평가원 | 시청자위원회 | 방송사측 |
| - | -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명 | 편성시간 | 편성시간 변경 |
|---|---|---|
| 바로보는TV 옴부즈맨 |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br>(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 해당사항 없음 |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 평가원명 | 방송일 | 방송 주요 내용 | 비고 |
|---|---|---|---|
| 김정원 | 5/3 | [뉴스03] '비거주 1주택자' 겨냥…장특공제 폐지논란<br>[와이드17] 검사 줄사직에 쌓여가는 사건…기소 건수 16% 급감 | |
| 안지연 | 5/10 | [뉴스오늘] 노동절 빨간날 됐지만…10명 중 4명은 '그림의 떡'<br>[뉴스리뷰] 사고 책임 부담에…초등교사 96% 체험학습 '부정적' | |
| 김홍태 | 5/17 | [뉴스리뷰] 다음 타깃은 임대사업자?…정부, 매물 잠김 우려 차단<br>[와이드08] 2초 일상 공유…'셋로그'에 빠진 MZ세대 | |
| 김정원 | 5/24 | [뉴스1번지] 캄보디아 감금 한인 또 구출…취업 사기 여전<br>[뉴스투나잇]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반대가 찬성 첫 추월 | |
| 김경아 | 5/31 | [뉴스24] 지선 D-7 늘어나는 격전지…곧 '깜깜이 국면' 돌입<br>[뉴스투나잇] 서소문고가 철거 중 붕괴…3명 사망·3명 부상 |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 구 분 | 성 명 | 전 · 현직 | 평가원 선임일 | 비 고<br>(변경사유 등) |
|---|---|---|---|---|
| 활동 | 김홍태 |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 2018. 06. 28 | - |
| 활동 | 안지연 |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 2023. 01. 31 | - |
| 활동 | 김정원 |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 2025. 08. 21 | - |
| 활동 | 김경아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26. 02. 20 | -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 방송일시 | 평가원명 | 평가원 진술내용 | 답변내용 |
|---|---|---|---|
| 2026<br>5/3(일) | 김정원 | 비거주 1주택자’ 겨냥…장특공제 폐지논란<br>배진솔 기자<br>송고2026-04-26 08:17<br><br>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에서 비거주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br><br>이 보도는 장특공제 개편의 방향과 세 부담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시청자들이 정책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물 출회 기대 효과와 전세시장 불안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함께 담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br><br>다만 전문가들이 법 개정 전 매도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단기 매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 기간 설정이나 단계적 시행 방안 등을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득실을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만큼 좀더 세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해서도 더 다양하게 소개하고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6<br>5/10(일) | 안지연 | 사고 책임 부담에…초등교사 96% 체험학습 ‘부정적’<br>송고 2026-05-04 18:36<br>이경희 기자<br><br>최근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사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br><br>다만 보도는 교사들의 인식과 부담에 초점을 맞춘 만큼, 현장 체험학습 축소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이나 실제 대안 논의까지 함께 담겼다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 추후 리포트 등으로 처리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변2026<br>5/17(일) | 김홍태 | 2초 일상 공유…'셋로그'에 빠진 MZ세대<br>송고2026-05-09 09:45<br>이따끔 기자<br><br>와이드08에서는 2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SNS '셋로그'가 MZ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소통 문화로 떠오른 '셋로그'의 인기 비결을 전했습니다.<br>이번 방송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SNS 문화인 ‘셋로그’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앱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인터뷰를 | 평가에 감사드립니다<br>앞으로도 계속 젊은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통해 “편집 부담이 적다”, “가족과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는 생생한 반응을 담아낸 부분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존 유튜브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꾸며진 콘텐츠가 아닌, 2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쉽게 설명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과시형 SNS 피로감’과 ‘숏폼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까지 연결한 부분까지 있어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
| 2026<br>5/24(일) | 김정원 |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반대가 찬성 첫 추월<br>송고2026-05-18 23:24<br>최덕재 기자<br><br>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찬성을 앞질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변화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을 0.29%포인트 앞섰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찬성이 64.7%, 반대가 17.7%였던 것과 비교하면 18년 사이 찬성은 절반 가까이 줄고 반대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인식 확산과 맞벌이 증가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합니다.<br>이 보도는 18년간의 조사 결과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분석과 보육 통계를 더해 인식 변화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br><br>나아가 세대별, 성별 응답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인식 변화의 | 성평등 인식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조사 내용이어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세대별, 성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
| | | 온도차를 더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
| 2026<br>5/31(일) | 김경아 |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br>입력 2026-05-26 23:19:46<br>박준혁 기자<br><br>본 보도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핵심으로 다루었습니다.<br>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고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을 김수현 씨로 편집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해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 등이 수사 당국에 의해 밝혀졌음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수사 기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선 입장까지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br>이번 보도는 연합뉴스TV가 보도를 신속하면서도 사안의 예민함을 감안한 객관성이 돋보였습니다.<br>구속영장 발부 직후 빠르게 속보를 편성하여 법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연예계 가십이나 자극적인 루머 차원에 머물던 사안을 사법적 단죄가 시작된 구속 사건으로 격상해 다룸으로써 사안의 엄중함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br>하지만 자막과 앵커 멘트에서 김수현 명예훼손, 김새론 미성년 교제설 등 자극적인 |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보도시 반영하겠습니다. |

| | | | |
|---|---|---|---|
| | | 사생활 영역의 단어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전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라도, 자극적 키워드의 과도한 노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중이 사건을 연예인 스캔들로 소비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인 가짜뉴스를 통한 사익 극대화나 무분별한 폭로 저널리즘의 한계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을 짰다면 더욱 품격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5.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율을 재편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에서 비거주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3년 실거주한 뒤 25억 원에 팔 경우, 현행 양도세는 1억 5천만 원대이지만 개편 후에는 3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합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 서둘러 매도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비수도권 거주자가 보유한 수도권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장특공제 개편안의 7월 세법 개정안 포함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장특공제 개편의 방향과 세 부담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시청자들이 정책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물 출회 기대 효과와 전세 시장 불안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함께 담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법 개정 전 매도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단기 매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이나 단계적 시행 방안 등을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득실을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일선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형사 기소 건수가 평년보다 1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지방검찰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만 검사 175명이 사직하며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 9천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5.9%, 2년 전보다 17.8% 줄었습니다. 약식기소도 1년 전보다 10% 가량 감소했습니다. 검사 한 명당 미제사건이 많게는 500건까지도 폭증한 결과입니다. 비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은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대전·광주·전주·울산·청주지법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모두 20% 이상 줄었습니다. 검찰은 경력검사 임용 규모를 2배 늘리고 소규모 지청 검사를 대규모 지청에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인력 돌려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검사 줄사직의 여파를 법원 접수 건수와 지역별 감소율 등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구분해 짚은 점도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기소 건수 감소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구

체적인 어려움을 짚었다면 통계 너머의 민생 현실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에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담 상담 인력을 늘리고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에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31.1%, 은둔 경험이 있는 경우도 35.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강화하고, 집중 심리 클리닉 전담 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렸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지역도 현재 광역 2곳, 기초 10곳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전달하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그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통계와 사례를 균형 있게 배치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렸다는 정부 대책이 17만 명에 달하는 대상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빠진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지원 체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역대 최저인 1.5%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가 버티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진단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57%로 1.5%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생산성·자본·노동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급감, 노동시장 경직성,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훈풍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훈풍이 지나간 후를 대비해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보도는 잠재성장률의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하락 원인과 대응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였습니다.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은 담겼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만나 AI 기술 발전과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는 AI 기술 발전과 이를 둘러싼 변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AI가 저성장·기후위기·의료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짚으며 'AI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질문했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주택·교육·교통 등 기본 서비스를 국



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첫 사례로, 구글 연구진 최소 10명의 한국 파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상급 회담의 주요 내용을 AI 기술 협력과 철학적 논의,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서울 AI 캠퍼스 개소라는 가시적 성과도 함께 담아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AI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언급됐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국내에서 AI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62억 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하고 국내 법인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세제 개편이나 입법적 조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명시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 구조를 해외 법인으로 분산시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복잡한 법인세 소송의 핵심 쟁점을 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수익 구조로 나눠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재판부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을 짚어 이번 판결의 파장을 넓게 조명하여 시청자들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한편 재판부 스스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 빅테크 과세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5.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노동절이 법적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의미의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되면서 유급휴무일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온전히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보도는 택배기사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급도 받지 않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이번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5.2%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정규직은 24.2%에 그쳤지만, 파견용역직은 40%, 일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8.3% 역시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약 9백만 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상 다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가로 보장된 노동절 역시 쉬지 않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제도 밖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해, 노동절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의 휴일이 아님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는 유급 휴무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열에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다뤄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적으로는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날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둘러싼 움직임도 함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실제 노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소비자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수급과 유통 구조의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계란 값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대형마트를 찾아 계란 코너 매대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6,965원으로 지난해 5월 4년 만에 7천원을 넘어선 뒤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1,100만 마리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된 탓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란 가격이 형성되는 유통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또한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유통 단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 생산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계란값 상승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매대가 비어있는 장면과 현장 안내문을 통해 가격 불안과 수급에 대한 우려를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이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계란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계란값 상승을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산란계감소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가격 불안의 배경을 다각도로 짚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계란값 상승 배경과 유통 구조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구매 변화까지 함께 담았다면, 계란값 상승이 생활에 미치는 부담과 함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사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2022년 강원도 춘천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사망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30%,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17%에 그치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고,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와 과도한 행정업무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 지금처럼 사고 이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사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학교 행사 축소가 아니라 안전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조적 부담을 안고있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현장 체험학습 위축을 개별 교사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부담의 결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등 교사들의 복합적 부담을 보여줘, 현장 체험학습 축소 배경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도는 교사들의 인식과 부담에 초점을 맞춘 만큼, 현장 체험학습 축소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이나 실제 대안 논의까지 함께 담겼다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SNS와 유튜브에서 아동을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SNS 육아 공유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보

도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해 유튜브 출연 아동 100명 중 6명은 인권보호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SNS에 '육아'키워드를 검색하니 아동의 모습이 담긴 수천만 개 게시물이 나타났고, 이 중엔 아이가 울거나 벌을 받는 모습, 속옷만 걸친 모습 등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영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비단 유튜브 채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육아 일상을 공유한다는 명분이지만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아이의 영상이나 이미지 소비가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안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지나친 SNS 노출이 정서 발달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AI 합성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SNS와 유튜브에서 아동이 콘텐츠로 소비될 때 직면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잘 전달했는데요, 특히 부모가 아동을 콘텐츠의 주된 소재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아동 인권과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무는 보호 장치의 한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즉 이 보도는 육아 일상 공유 콘텐츠를 단순히 일상적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무엇을 위해 아동의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보도는 아동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안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규제와 제도 개선의 방향까지 함께 짚어봤다면 보다 의미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5. 1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뉴스리뷰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정부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 차단에 나섰다는데요,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까지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드08에서는 2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SNS '셋로그'가 MZ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소통 문화로 떠오른 '셋로그'의 인기 비결을 전했습니다. 중동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른바 'BTS 효과'로 여행수지도 1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투나잇에서는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었는지를 물으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꽃 소비가 확 줄어들었고, 요즘 화훼업계 분위기가 예년보다 많이 어려워 1년 중 최대 대목인 5월에도 한숨이 깊은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실제 거래량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과거 사례나 통계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각 계층별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추가됐다면 정보 전달력이 강화됐을 것입니다. 공급 확대 계획 역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제 정책 변화가 시장 심리와 거래량, 전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면 방송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시간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구조가 오히려 강박이나 비교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개인정보 유출 우려, 청소년들의 SNS 의존 문제 등을 함께 다뤘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가 소통의 도구일 뿐 삶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친 기록과 비교보다는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당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 체감경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에 중소기업이나 내수시장 상황이 제시된 수치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위험성과 중동 정세 악화 시 유가가 상승하고 물류 차질의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를 넘어 왜 꽃 소비 문화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변화 분석이 추가됐더라면 상당히 유익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상품권이나 현금 선물 문화 확산, 1인 가구 증가, 경기 불안 심리 등이 소비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화훼농가 지원 정책, 온라인 직거래 확대 사례,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꽃 소비 문화 등 대안도 함께 소개했다면 한층 깊이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 보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시의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을 함께 설명해 시장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 발언과 전문가 분석을 함께 담아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 잠김' 우려와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동시에 제시해 시청자 판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SNS 문화인 '셋로그'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앱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편집 부담이 적다", "가족과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는 생생한 반응을 담아낸 부분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존 유튜브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꾸며진 콘텐츠가 아닌, 2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쉽게 설명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과시형 SNS 피로감'과 '숏폼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까지 연결한 부분까지 있어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보도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여행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수치와 함께 설명하고, 반도체·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와 BTS 공연 효과까지 연결해 경제와 문화 산업의 연관성을 함께 보여준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대목에도 불구하고 깊어지는 화훼업계의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꽃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상인의 인터뷰와 실제 판매량 감소 수치를 함께 제시해 단순 체감이 아닌 현실적 위기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네이션 판매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는 구체적 자료와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비·난방비 상승까지 연결해 경제 상황이 서민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점도 잘된 부분입니다. 또한 농가, 도매업체, 소매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담아낸 것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부활했는데요, 시장에선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나면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반등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최근 7만 건 아래로 줄어들며, 하락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며 '잠겨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선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시 매물 출회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18년 전후 등록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가 서울에 약 2만 5천 가구 정도 될 거라면서, 그중 일부가 절세 목적에서 시장에 매물을 추가로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1시간마다 알림이 울리면 2초짜리 영상을 찍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셋로그'로, 아침 기상부터 출근 준비, 모닝 커피와 점심시간까지 직장인 4명의 하루가 실시간 일기처럼 기록되는데요, 사용자가 초대한 지인 최대 12명만 볼 수 있고, 별다른 편집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난 2월과 4월 양대 앱스토어 출시 이후 단숨에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셋로그 이용자는 한 시간 단위로 뭐하고 있는지 찍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개방형



SNS처럼 콘텐츠 구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인기 요인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시형 SNS에 대한 피로감과 숏폼에 익숙해진 MZ세대의 소통 방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헌식 대중 문화 평론가는 쇼츠나 릴스 등 짧은 콘텐츠들이 핵심적인 부분만 공유하다 보면 그 가치가 증가하니까 사생활 보장에, 그런 자신들만의 취향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싶어 하면서도 SNS 피로를 호소하는 MZ세대, 1시간마다 영상을 올리는 셋로그 구조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장기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마무리했습니다. 보도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또다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3월 경상흑자는 373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월과 비교해 141억 4천만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수출액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일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에도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상황이 변수인 만큼 향후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행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BTS의 광화문 공연과 봄철 국내여행 성수기가 맞물린 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보도를 마무리 했습니다. 22년째 꽃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미실 씨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판매량에 장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훼 업계에서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5월은 이른바 대목으로 꼽히지만, 꽃 소비가 줄면서 물량을 대폭 줄였는데 이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월 첫째주 전국 카네이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감소했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꽃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료와 플라스틱 화분, 포장용 비닐 같은 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다, 일부 품목은 수급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재배 농가와 도소매 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비닐하우스 난방에 필요한 등유 가격은 물론 온라인 배송이나 유통 과정에서 드는 운송비 증가 역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자칫 소비자가 떠날까 가격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5월 특수는 없다는 우려 속에 화훼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5.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 사기를 이용한 납치,감금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현지 경찰과의 국제 공조로 구조됐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난 3월 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 호텔에 약 한 달간 감금된 채 미화 2만 달러를 요구받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A씨가 우리 대사관에 구조 요청 문자를 보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구출했고, 중국인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나흘 뒤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러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20대 여성 B씨도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감금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용 공고를 유포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보도는 피해자 인터뷰와 현장 영상을 통해 감금 범죄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신고 접수 9시간 만에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제 공조의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해외 구인 공고 검증 시스템 현황을 함께 짚었다면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찬성을 앞질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변화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을 0.29%포인트 앞섰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찬성이 64.7%, 반대가 17.7%였던 것과 비교하면 18년 사이 찬성은 절반 가까이 줄고 반대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인식 확산과 맞벌이 증가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만 1세 보육 기관 등록률은 89.8%, 만 3~5세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94.1%에 달해 보육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제도적 지원 강화로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18년간의 조사 결과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분석과 보육 통계를 더해 인식 변화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세대별, 성별 응답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인식 변화의 온도차를 더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모두 사기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해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 삭제하고, 필요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국번 없이 1394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스미싱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예방법과 신고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다룬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스미싱 범죄가 지원금 지급 시기마다 반복된다고 언급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사전 대응이나 처벌 현황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피해 예방 안내에 더해 스미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방향을 함께 짚었다면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15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방부터 노래 대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숏폼 영상 경쟁이 뜨겁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정당 후보들도 쇼츠를 적극 활용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쇼츠는 후보들이 핵심 공약을 쉽게 설명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짧은 영상 특성상 맥락을 자른 악의적 편집이나 네거티브 확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부산 북갑에서는 특정 장면만 편집된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숏폼이 선거 운동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 잡는 현상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후보들의 친근한 콘텐츠뿐 아니라 악의적 편집과 네거티브 확산 우려까지 함께 짚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숏폼이 선거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는 만큼, 오락적 요소 이면에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따져봤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15초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숏폼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를 짚었다면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화점들이 명품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반면, 초저가 소비 트렌드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훈풍과 고물가 부담이 엇갈린 소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40% 이상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른 명품 수요 증가와 외국인 소비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명품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반면 5천 원 이하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거지맵'이 인기를 끄는 등 초저가 소비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훈풍을 탄 고가 소비와 고물가에 대응한 절약 소비가 함께 나타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는 백화점 실적과 초저가 소비 트렌드를 대비시켜 소비 양극화 현상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생활 밀착형 사례를 함께 활용해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쉽게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소비 양극화의 배경으로 자산시장과 고물가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소비 격차가 심화될수록 계층 간 박탈감이 커지고 내수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다뤘다면 보도가 단순한 트렌드 소개를 넘어 사회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더 깊이 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

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월 단체 측은 이를 '5·18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현지에 급파된 이마트그룹 부사장의 사과 시도도 재단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머그잔을 깨거나 선불 충전금을 환불하겠다는 불매 움직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보도는 이벤트의 문제가 된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의 대응, 5월 단체의 반응, 소비자 불매 움직임까지 사태의 전개를 순서대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케팅 실수인지, 아니면 역사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기업의 콘텐츠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사적 민감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짚었다면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5. 3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 입니다. 6.3 지방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에 돌입했는데요. 안개 속 정국일수록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며 갈수록 격전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전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 즉, 민심의 지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이 되는데요 각 당 캠프는 여론조사 금지 전 마지막 공표 결과를 주시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막판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는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내용과 함께 격전지에서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표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선거 정국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을 'D-7 깜깜이 국면'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로 이 시점이 왜 선거 운동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시기인지를 시청자에게 직관적이고 시의성 있게 환기시켰습니다. 단순히 후보자들의 획일적인 이동 동선이나 유세 멘트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막판 선거판의 역동성을 짜임새 있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여론조사 금지 기간을 깜깜이라는 표현으로만 소비했을 뿐 이 제도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혹은 정보 공백기 속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될 위험성에 대한 언론 차원의 진지한 성찰이나 비평이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도심 속 노후 고가차도의 철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특히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뉴스초점>에서는 사고 당일 '3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엄중한 인명 피해 사실을 신속히 전하는 동시에, 전문가 대담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거시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본 보도는 당일 오후 발생한 붕괴 사고의 전말과 사법 당국의 수사 방향을 4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2.9cm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던 도중 상판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고의 직접적 계기를 보도하고 구조적 노후화와 하중의 물리적 한계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현장 노동자 개인의 과실을 문책하는 협소한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당국의 공사 관리 시스템 전반을 규명하는 수사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건 초기 언론이 흔히 범하는 정서적 과열이나 자극적인 피해 묘사를 지양했습니다. 안전 공학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배치하여 사고의 과학적 원인을 차분하게 짚어냄으로써 시청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을 반복 노출하며 앵커와 전문가가 해당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구조물이 힘없이 주저앉는 순간과 주변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붕괴 사고 발생 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꼬리를 자르는 고질적인 건설 업계의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시스템적 붕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발주처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아젠다 세팅을 통해 공익적 저널리즘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글

로벌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선 대기업의 노사 정립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주주 가치 보호를 아우르는 사회경제적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노노 갈등과 주주 단체의 법적 반발까지 예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본 보도는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 종료를 앞두고 일어난 안팎의 거센 반발 기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반도체 부문 중심의 대형 노조가 협상을 주도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외부에서는 주주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 가결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다변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담아냈습니다. 과거의 노동 관련 보도가 대부분 사측 대 노조의 단선적 대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보도는 노노갈등과 기업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주주의 반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임금협상이 더 이상 일터 내부의 일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입체적인 사건임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심층 보도와 미디어의 사회적 해설 기능 측면에서는 보도전문채널로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보도는 동행노조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탈퇴하고 가처분을 냈다는 사실 관계만을 짧게 나열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격차, 그리고 직군 간 상이한 근무 환경 등 갈등의 근본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표면적 현상만 받아적기보다 구조적 모순을 짚어주는 리포트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과 이를 향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존중과 표현의 경계를 되짚어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상징성이 매우 컸습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먼저 뉴스는 정 회장이 직접 머리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에 따라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논란과는 별개로 실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보도했는데요. 현행 5·18 특별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사실 유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번 마케팅 행위를 법적으로 걸고넘어지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관련 AI 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과 국회에서 단순 조롱이나 비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기업의 마케팅 실수나 단어 선택의 오류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사안의 본질이 역사 왜곡 및 민주화 유공자 모욕이라는 사회적 법적 혐의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뉴스 고유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제목에서 정용진 법적 책임은...이라는 거시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문에서는 정 회장에게 실무진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이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당일 진행된 신세계 그룹 측의 사과 기자회견 내용이나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의 반발 기류 등



을 거시적으로 연결 짓지 못해 다소 단편적인 상황 중계에 그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확산 속에 1인 미디어와 대안 플랫폼의 사회적 파급력은 레거시 미디어를 위협할 만큼 강력해졌는데요, 동시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인권 침해 같은 저널리즘 윤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로 뉴미디어 인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속보]로 관련 소식을 긴급히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핵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고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을 김수현 씨로 편집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해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 등이 수사 당국에 의해 밝혀졌음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수사 기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선 입장까지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연합뉴스TV가 보도를 신속하면서도 사안의 예민함을 감안한 객관성이 돋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빠르게 속보를 편성하여 법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연예계 가십이나 자극적인 루머 차원에 머물던 사안을 사법적 단죄가 시작된 구속 사건으로 격상해 다룸으로써 사안의 엄중함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산해 낸 자극적인 허위 음성이나 조작된 카카오톡 이미지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구요, 대신 정제된 그래픽과 멘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언론 윤리를 잘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자막과 앵커 멘트에서 김수현 명예훼손, 김새론 미성년 교제설 등 자극적인 사생활 영역의 단어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전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라도, 자극적 키워드의 과도한 노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중이 사건을 연예인 스캔들로 소비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인 가짜뉴스를 통한 사익 극대화나 무분별한 폭로 저널리즘의 한계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프레임을 짰다면 더욱 품격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table>
<tr><td>일시/장면설명</td><td>일시/장면설명</td></tr>
<tr><td>2026년 5월 3일 04시/<br>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r>
</td><td>2026년 5월 10일 04시/<br>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r>
</td></tr>
<tr><td>일시/장면설명</td><td>일시/장면설명</td></tr>
<tr><td>2026년 5월 17일 04시/<br>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r>
</td><td>2026년 5월 24일 04시/<br>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r>
</td></tr>
<tr><td>일시/장면설명</td><td></td></tr>
<tr><td>2026년 5월 31일 04시/<br>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r>
</td><td></td></tr>
</table>